

인천 섬 지역상생 캠프 X 블루아일랜드
참가자 활동 수기집

우 리 의 여 - 름 이 야 기

인천 섬 지역상생 캠프 X 블루아일랜드
참가자 활동 수기집

우 리 의 여 - 름 이 야 기

청년, 인천 섬에 활력을 불어넣다





01 인천 섬 지역상생 캠프란? 03

02 활동 수기 04

문화콘텐츠문화경영학과	04
영어영문학과	10
중국학과	18
프랑스언어문화학과	19
한국어문학과	21

03 함께한 사람들 23

참가자명단 + 활동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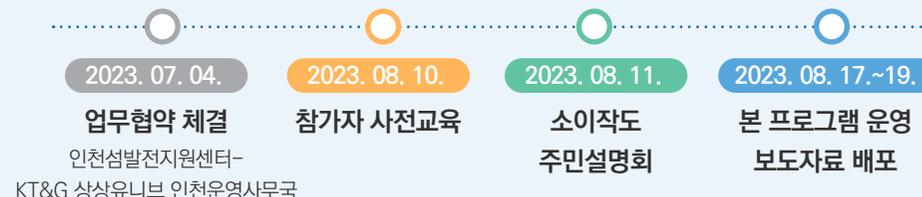
인천 섬 지역상생 캠프란?

인천섬발전지원센터와 KT&G 상상univ. 인천운영사무국은 인하대학교 문과대학 '아이코' 봉사단 25명과 함께 2023년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인천 옹진군 소이작도에서 '인천 섬 지역상생 캠프 x 블루아일랜드'를 진행하였습니다.

목적

인천 섬 주민과 대학생의 문화예술 교류활동을 통한 인천 섬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프로그램 기획

연혁



소이작도 주민 인터뷰



김석진 이장

학생들이 벽화봉사, 해안 쓰레기 정화, 모래 치우기 등 힘든 일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어서 매우 고마웠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그린 벽화는 마을의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소이작도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다음에도 소이작도에 많은 청년들이 방문하여 마을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특성화사업
김종석 추진위원장

올해 여름, 소이작도에 청년들이 봉사활동을 와서 마을에 생기가 넘쳤습니다. 특히 여행자센터 앞 데크에 바람이 불면 모래가 쌓여 고민이 많았는데, 학생들이 무더운 날씨에 열심히 모래를 치워주어 고맙습니다. 또한 소이작도에서 진행되는 특성화사업을 계기로 보다 젊고 모든 남녀노소가 즐겨 찾는 모범적인 섬 마을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23년 8월 17일(목)



1일차

- 마을의 숨겨진 명소, 5경 찾기
- 해안 쓰레기 정화
- 모래 데크 정리
- 찾아가는 집수리 봉사

23년 8월 18일(금)



2일차

- 벽화봉사
- 바지락체험
- 홍보영상제작

23년 8월 19일(토)



3일차

- 외래어·스마트폰 교육
- 후기공유회



• 활동수기 •

1

흔치 않은 봉사활동기회 블루 아일랜드 프로젝트

인하대학교 문화콘텐츠문화경영학
박정진



8월 17일부터 8월 19일까지 인천광역시 섬 중 하나인 소이작도에 가서 참여한 '인천 섬 지역상생 캠프'는 전반적으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마을 환경 개선과 마을 주민들과의 소통이 주요 활동이었는데, 세부적으로 파도막이 벽화 그리기, 모래장애물 철거, 해안가 쓰레기 치우기, 섬 주민 교육봉사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봉사활동 이외에도 갯벌 체험, 숨겨진 5경 찾기, 조별 릴스 제작과 같은 쉬어가는 활동들도 진행이 되어서 봉사 와 체험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 느낌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위 활동들 중에서 파도막이 벽화 그리기와 갯벌 체험이 크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파도막이 벽화 그리기의 경우, 그림을 잘 그리는 봉사단원들이 많아서 결과물이 생각보다 훨씬 보기 좋아서 기억에 남았



습니다. 또한, 다같이 그린 벽화를 한눈에 볼 수 있어 부딪힘이 비교적 컸던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졸업 이후에 소이작도에 다시 방문하여 제가 그렸던 벽화를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갯벌 체험의 경우, 평소에는 쉽게 해볼 수 없는 바지락 캐기를 해볼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위 활동들 모두 더위를 잊고 참여할 정도로 성취감과 보람,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던 활동들이었으며, 활동과정에서 봉사단원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활동적인 부분들과는 별개로, 섬 주민분들께서 친절히 해주신 부분도 좋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봉사단원들을 위한 이동수단을 제공해주시고, 조금이라도 저희가 편할 수 있도록 섬세한 부분까지 신경써주셔서 더욱 힘내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숙소에서 제공해주신 모든 식사에서 정성을 느낄 수 있었으며, 맛과 양도 모두 좋아서 만족스러운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전반적인 일정을 계획해주신 인천섬발전지원센터와 상상유니브 직원분들, 책임감 있는 봉사단 운영위원, 협조적인 봉사단원들이 없었다면 이번 봉사활동이 이와 같이 보람찰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단원들의 상태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일정을 조정해주신 관리자들, 때와 장소에 따라 적절히 통제해주신 봉사단 운영위원분들, 그리고 그에 순응하며 끝까지 봉사활동에 참여해준 봉사단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수기를 마칩니다.

• 활동수기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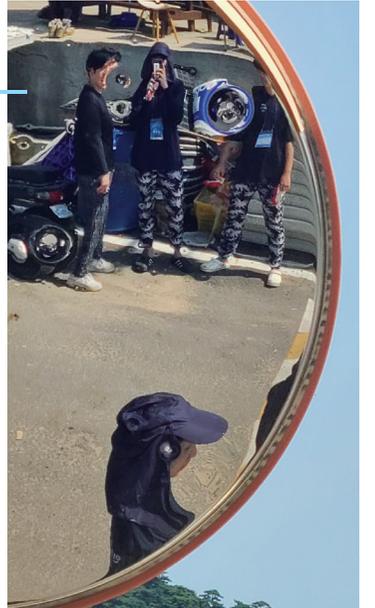
아이코, 소이작도

인하대학교 문화콘텐츠문화경영학
방강진



방학 때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싶어서 무작정 봉사단에 들어갔다. 몇 차례의 회의를 거치며 봉사 내용이 구체화되었고, 한참 나중일 것 같던 봉사 날이 다가왔다. 8월 17일 아침, 인하대학교에서 모인 봉사단원들은 연안부두로 이동하여 2시간가량 배를 타고 섬에 도착했다. 도착해서 했던 첫 번째 일은 소이작도에 모여있던 쓰레기 더미를 정리하는 일이었다. 별레도 많고 날씨도 더웠지만 주변에 손가락 바위나 바다 같은 아름다운 경관들이 있어서 구경도 하고, 쉬는 시간도 충분했던 터라 무사히 일을 끝마쳤다. 저녁으로 회를 먹었는데 살면서 먹은 회중에 가장 맛있었다. 저녁을 먹고 숙소에 가서 같은 봉사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니 봉사의 첫날이 저물었다. 둘

째 날에는 일어나서 숙소 앞에 있는 벽에 벽화를 그렸다. 분필로 도안을 먼저 그린 후에 벌안 해수욕장 갯벌로 이동해서 바지락을 캐다. 드문 경험이기에도 더운 줄도 모르고 즐겁게 임했다. 그리고 다시 숙소 앞으로 돌아와 벽화 색칠을 마저 했다. 아무 생각 없이 옆사람과 떠들면서 색을 입혔는데, 점점 완성되는 벽화를 보니 부듯했다. 색칠 막바지에는 해가 떨어지고 있어서 덥지도 않았고, 페인트를 가지러 이동할 때 벽 앞에 모여있는 봉사단원들과 농담을 하면서 지나가는 소소한 재미가 있었다. 벽화를 다 그리고 나니 저녁시간이 되었고 다같이 고기를 먹었다. 다 먹고 방에서 놀다 보니 어느새 밤이 깊어 있었고 잠을 청한 뒤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다. 정신 없이 일어나 움직였지만 슬슬 아쉬움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아침에는 소이작도의 풍경을 담은 인스타그램 릴스를 찍었고, 이후에 마을 경로당에서 주민분들께 외래어와 스마트폰 교육을 진행했다. 이후에 여행자센터에 가서 수수료증을 전달받고 찍은 릴스를 다같이 보며 공식적인 봉사활동이 마무리 되었다. 숙소로 돌아가서 짐을 싸고 배에 탈 준비를 하는데 큰 아쉬움이 밀려왔다. 배를 타고 돌아갈 때도 공허함이 느껴졌다. 일을 하긴 했어도 봉사라는 틀에서 진행했기에 굉장히 보람 있었고,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멋진



경관을 보면서 일했기에 여행을 왔다가는 느낌이 들었다. 마을 분들도 너무 좋으셨고 봉사단원들도 재미있어서 며칠 더 일하고 놀다 오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집에 돌아온 나는 아직도 소이작도를 검색해보고 로드뷰로 섬을 돌아다닌다. 이번 봉사는 중고등학교에서 했던 간단한 봉사가 아닌 2박3일동안 섬에 있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직접 꾸미고 정화하는 봉사였기에 그 장소에 애착함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 언젠가 봉사든 관광이든 다시 한 번 섬에 방문하고 싶다.



• 활동수기 •

3

추억, 수료증 그리고 붉은 자국의 모기

인하대학교 문화콘텐츠문화경영학
신예령

2023년도 여름방학, 낭만과 열정이 가득했던 인천 섬 지역상생 캠프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파란 바다로 둘러싸인 섬은 2학기 개강으로 인해 슬픈 대학생들을 행복하게 하기 충분했고요. 우리는 '문과대 봉사단' 이름 아래 하나 둘 모여 소이작도를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 날, 여유롭게 아름답고 특색있는 5경을 찾아 해적순길을 걷고, 해안정화 및 데크 정리를 했습니다. 데크 정리에서 정말 열심히 삽질을 했어요. 중간중간 휴식 시간이 정말 달았습니다. 완벽한 본래 모습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여 아주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활동이었어요.

두 번째 날, 벽화를 그리고 갯벌 체험을 했습니다. 벽화를 그릴 때 해가 작열해서 모두 땀을 진짜 비처럼 흘렸어요. 밑그림을 그리고 페인트를 칠하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았지만,, 때는 8월 중순으로 한! 여름 한! 낮이라 밖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완성한 뒤 바라보니 뭔가 벽차오르고 행복했어요. 작업 중 모기에게 엄청나게 물려서 너무 가렵기도 했고요. 갯벌 체험은 뭐. 바지락 파티였습니다!

마지막 날, 네트워킹 봉사에서는 외국어 순화교육 담당 선배님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즐겁게 배우시는 어르신들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모든 프로

그램이 끝나고 단체 사진을 찍고 수료증을 받으며 소이작도 봉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섬은 수도권에서 이리저리 치었던 저에게 참 정겹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물론 인천의 섬이니까 소이작도도 수도권에 속하지만, 푸른 하늘과 반짝거리는 바다 그리고 울리는 매미 소리가 제게 심어놓은 따스한 할머니 댁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매 끼니 맛있고 배부르게 정성 담아 한 상 차려 주셨는데 그 점도요. 덕분에 즐겁고 뜻깊은 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대학교 1학년 여름을 <인천 섬 지역상생 캠프 X 블루아일랜드>에서 알차게 보냈습니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또 있다면 참여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 활동수기 •

4

여름의 마지막은 보람차게

인하대학교 문화콘텐츠문화경영학
이서영

대학에 들어오기 전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는 농촌봉사활동이 있었다. 블루아일랜드는 농촌은 아니지만 해양 봉사를 한다는 것이 엄청 매력적이었고 설레는 마음으로 참여했다. 새벽부터 배를 타고 소이작도로 향했다. 교육받을 때 소이작도는 작고 주민도 많지 않은 섬이라고 해서 기대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조용한 힐링하기 좋은 섬이었다.

첫날 한 프로그램은 5경 찾기와 조별 봉사활동이었는데 우리 조는 해안 데크 정리를 했다. 위에 말했듯 소이작도는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이어서 어디를 가도 무슨 사진을 찍어도 다 그림 같았다. 5경을 찾는 것보다 어떤 것을 5경으로 선정할지가 더 어려울 정도였다. 해안 데크 정리는 태풍으로 인해 데크까지 올라온 모래를 다시 해안으로 옮기는 봉사였는데 처음 갔을 때 주민분

께서 "5명이면 충분한데 왜 이렇게 많이 왔어"라고 하시길래 쉬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힘들었다. 일은 어렵지 않았지만, 더운 날씨와 강한 햇빛 아래서 삽질과 포뮬러로 옮기기를 반복하는 게 힘들었다. 그래도 다 끝낸 뒤에는 해안까지 가는 길을 다시 만든 느낌이라 엄청 부듯했다.

둘째 날은 벽화 봉사와 바지락 체험을 했다. 벽화 봉사로 살면서 꼭 해보고 싶은 봉사였는데 이번 기회에 하게 돼서 좋았다. 벽화 봉사도 더운 것만 제외하면 너무 재밌었다. 우리가 벽화 봉사를 한 위치는 섬의 입구에 근접해 있어서 주민분들과 관광객분들이 처음 마을에 와 우리의 그림을 보게 된다는 것이 너무 부듯했다. 바지락 체험도 처음 해본 건데 재밌었다. 옛날에는 낚시나 채집을 무슨 재미로 하나 싶었는데 막상 내가 해보니 너무 재밌어서 좀 더 하고 싶



었다.

마지막 날은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외래어와 스마트폰 교육을 진행했다. 생각보다 많이 안 오셔서 아쉽기도 했지만 참여해 주신 분들께서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했다. 마지막으로 릴스영화와 함께 수료증을 받고 다시 집으로 향했다.

이번 봉사는 정말 봉사다운 봉사였다고 생각한다. 엄청나게 힘들었지만 그만큼 부듯했다. 소이작도의 멋진 자연경관과 친절함 주민분들, 삼시세끼 맛있게 먹은 밥, 트럭 뒷자리에 타고 험한 산길을 달린 것, 친구들과 쉬는 시간에 했던 소소한 얘기들. 어느 것 하나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다.

• 활동수기 •

해적섬에서의 보물찾기

인하대학교 문화콘텐츠문화경영학
이 유 진

방학 동안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싶어 친구들과 문과대 봉사단에 들어가게 되었다. 소이작도로 장소가 정해지면서 인천시의 섬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소이작도의 규모가 매우 작고 거주하는 주민분들의 수도 적다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 생각했던 것보다는 커서 신기했다.



소이작도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마을의 숨겨진 명소를 찾는 5경 찾기 활동을 하였다. 우리 조는 벌안 해수욕장에서 출발하여 풀등 전망대를 찾아 이동했다. 길을 잘 알지 못해서 전망대는 찾지 못했지만 벌안 해안길을 따라 걸으며 소이작도의 아름다움을 만끽했다. 도시의 삭막한 건물들에 둘러싸여 살다가 맑은 공기를 마시며 힐링할 수 있어 좋은 활동이었다.

5경 찾기 활동을 마친 후 해안 쓰레기를 수거하고, 여행자 센터 앞 데크의 모래를 정리하는 활동을 하였다. 원래도 해수욕장의 모래가 바람에 날려와 매해 데크를 치우신다고 하셨다. 이 활동은 지역 주민분들께서 도움을 요청하셨다고 했다. 무더운 햇볕 아래에서 삽으로 모래를 파내고 해수욕장으로 옮기는 활동이었다. 매년 이런 일을 하셨을 마을 주민분들에 대한 존경심이 들었던 활동이었다. 주민분께서 데크 치우기는 다섯 명이면 충분히 한다고 하셔서 많은 조원이 갔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크나큰 오산이었다. 생각보다 더욱 힘들었지만, 나중에 치워진 데크를 보니 힘들었던 몸의 피로가 싹 가시는 기분이 들었다. 두 번째 날에는 벽화 그리기 봉사를 하였다. 이 활동은 모든 봉사활동 중에서 가장 기대와 걱정이 된 활동이기도 하였다. 한 번쯤 해보고 싶었던 활동이었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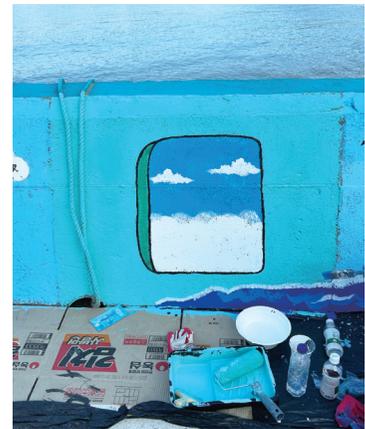
지만, 미술 전공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벽화를 잘 못 그려 섬의 조경을 망치면 어쩌나 우려가 되었기 때문이다. 걱정은 뒤로 하고 어떤 주제로 벽화를 그릴지 고민하다가, 떨어지는 운석의 일러스트에 꽃혀 조의 전체 테마를 우주로 정하고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모든 색을 준비할 수는 없었기에 색을 조합하여 원하는 색을 만들어야만 했다. 배경색은 아쉽게도 내가 원하는 색이 나오진 않았지만, 짙고 밝아서 눈에 더 띄는 벽화로 만들 수 있었다. 벽화를 그리는 시간이 딱 더울 시간이었어서 땀별이 떨어지지만 성과가 바로바로 보였기에 힘내서 할 수 있었다. 완성된 벽화를 보니 매우 뿌듯하였다. 그리고 주민분들과 소이작도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벽화를 보고 만족감을 느끼시고 즐거워하신다면 굉장히 보람찬 것 같다. 벽화 그리기 활동은 한 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재밌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이작도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너무나도 유익하고 알찬 2박 3일이었다. 캠퍼스 생활하는 동안 한 일 중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유익한 활동이었기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참여해 보고 싶다.

• 활동수기 •

소이작도 생활기

인하대학교 문화콘텐츠문화경영학
이 수 미

문과대학 봉사단의 첫 활동인 소이작도 봉사를 가기 전, 새벽에 일어나 피곤한 상태로 인천항으로 향했다. 당시에는 아는 사람이 한명도 없고 낯설고 피곤한 마음에 괜히 가겠다고 했나, 라는 생각이 앞서 들었다. 2시간 반정도 배를 타는 동안 뱃멀미와 피곤함으로 밖은 쳐다도 보지 못하고 잠든 상태로 소이작도에 도착하게 되었다. 더위에 취약한 나로서는 소이작도에 내리자마자 내리찍는 햇빛에 역시 괜히 왔더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주민분들께서 우리를 편하게 해주시기 위해 트럭을 대동해서 태워다주시는 모습에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다. 어디서 쉽게 해보지 못할 경험인 트럭 짐칸에 다같이 타는 것도 또한 재미있었다. 마을회관에서 다같이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첫 활동인 5경찾기를 하게 되었다. 손가락 바위와 해변 등 맛있는 경관



은 주위에 널려있었다. 학교, 아르바이트 등등 도심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나도 모르게 몸과 마음이 지쳤던 것 같은데 해변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과 경관을 보면서 마음이 치유되는 기분이었다. 치유를 받으면서도 해변의 쓰레기들이 눈에 거슬렸는데, 5경 찾기가 끝난 후 해안 쓰레기를 담았던 포대자루를 새 포대자루로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벌들과 벌레들이 공격하는 와중에 오래된 쓰레기다보니 악취도 심각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인간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묵묵히 포대자루를 옮겼다. 자루가 무거워서 남자 봉사단원들이 힘쓰는 일을 많이 담당했고, 덕분에 많은 도움이 못 되는 것 같아 속상했다. 그 날의 활동은 쓰레기 포대를 옮겨 담은 것으로 마무리 되었는데, 씻고 나오니 주민분들께서 마련해주신 회 한상이 정말 맛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한번도 그런 종류의 플레이팅을 본 적이 없는데 주민분들께서 우리를 반겨주신다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다음날에는 벽화 그리기와 갯벌 체험이 주를 이루는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내가 제일 걱정하던 활동 중 하나였다. 엄청난 똥손으로 유명한 내가 과연 소이작도의 얼굴인 선착장의 벽화를 잘 완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전날부터 잠을 설쳤다. 걱정이 무색하게 조

6



원들 중에 금손들이 많아서 내 그림을 많이 도와줬고, 무사히 벽화를 완성할 수 있었다. 모든 벽화를 완성한 후 벽화를 따라 걸어보았는데, 다들 너무 열심히 한 것이 눈에 보여서 감동적으로 다가왔다. 갯벌 체험 또한 너무 재미있었는데, 처음에는 생각보다 바지락이 잘 보이지 않아서 실망했다. 하지만 같은 조원이었던 단원이 양파망을 가득 채워오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가서 정신없이 바지락을 캐는데, 나 또한 한 망을 가득 채울 수 있었다. 다음날은 어르신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 섬 안에서 답답하게 생활하신다고 생각했는데, 나름의 섬 생활을 즐기고 계신 것 같았고 그 태도에서 나도 현실을 지루해하지 않고 살아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 더운 여름날에 가는 활동이라서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주민분들과 직원분들이 다 너무 잘 챙겨주셔서 부상자 없이 잘 지내다 온 것 같다. 내 대학생활에서 기억에 남는 한 페이지가 될 것 같아서 다녀온 것을 후회하지 않고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참여하고 싶다.

• 활동수기 •

아이코 봉사활동

인하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김보빈



저는 여름방학 기간 중 8월 17일부터 8월 19일까지 소이작도 섬으로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평소 해보고 싶던 2박 3일 봉사활동인 만큼 큰 기대를 가지고 간 첫날 5경 찾기를 하였습니다. 소이작도의 아름다운 해양 경치를 사진에 담고 야생 염소를 보는 것과 같이 신기하고 특별한 체험도 5경찾기 활동을 통해 할 수 있었습니다. 해안 정화 활동도 같이 진행하였는데 주민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서 부딪힘도 느낄 수 있었고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여 더 가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8월 18일 둘째 날에는 벽화봉사를 하였습니다. 조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 벽을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



낄 수 있었고 더운 날씨에 다들 지쳐갈 때 소이작도 주민인 8살 친구가 마을 이쁘게 만들어주세요 고맙다는 의미로 해주는 부채질은 8살 친구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이작도에 들어올



7



때 보이는 벽을 대표하여 꾸몄다는 점에서 잊지 못할 행복과 보람을 느낄 수 있어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입니다. 중간에 진행한 바지락 캐기 활동은 온몸에 진흙이 묻고 생각보다 바지락이 나오지 않아 바지락을 캐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직접 캔 바지락으로 만들어 주신 바지락탕을 보고 부딪힘을 느꼈고 힘들게 캐다 나온 작은 바지락 하나가 큰 행복을 가져오게 했다는 점은 이 활동을 더 가치있게 만들어졌습니다. 8월 19일 셋째 날 경로당에서 주민분들에게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소수의 주민분들만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지만 이 활동을 통해 배운 내용을 토대로 주변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나의 작은 도움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누군가에게 행복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가치를 느꼈고 힘들기도 하였지만 다 같이 힘을 합쳐 진행하다 보니 서로 의지가 될 수 있었던 점도 앞으로의 나 자신을 가꾸는 데 도움을 준 거 같아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 활동수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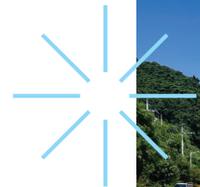
소이작도 블루아일랜드 봉사활동

인하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윤채연



이번 여름방학에 봉사단을 통해 소이작도에서 참여한 봉사활동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소이작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사람들, 그리고 소중한 경험들로 가득한 이번 봉사활동은 저에게 큰 감동을 선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은 섬의 지역 사회를 돕고자 마음먹은 봉사자들이 모여 열심히 준비한 결과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착해서 처음으로 느낀 것은 이곳의 순수한 자연환경과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작은 섬이라서 그런지 모두가 친근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주셨습니다. 활동은 다양했는데, 해변 정리, 벽화 그리기, 지역 주민분들 교육 등이 있었습니다. 해변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함께 참여한 봉사자들과 손잡고 모래 위의 작은 쓰레기들을 주워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 작은 노력이 모여 해변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몸소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의 벽을 그림으로 물들이는 벽화 그리기를 했는데, 함께 참여한 봉사자들과 예술가들의 열정적인 에너지가 바로 느껴졌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전에는 주어진 주제와 컨셉에 대해 함께 아이디어를 나누며, 벽화에 담을 메시지나 감정을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벽화가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이 작품이 마을의 일부로 자리잡게 될 것임에 대한 미소와 기대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 예술을 통해 많은 이들과 소통하고 감동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봉사활동을 마무리하고 나서, 그림을 보며 제가 이 작품에 기여한 만큼 더 나아가고 성장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8



예술의 힘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동시에 제 자신에게도 큰 영감을 선사하는 경험은 이번 봉사활동에서 얻은 가장 큰 보람 중 하나였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작은 노력이 모여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었고, 앞으로도 예술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며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소중한 순간을 나누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된 경험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는 섬의 아름다운 일몰을 바라보며 저에게 주어진 기회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소이작도에서의 작은 노력이 이어져 섬의 아름다움을 보존하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소이작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나누는 봉사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 활동수기 •

아이코 봉사단의 첫 발걸음

인하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이연재



소이작도 봉사활동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 한 단체 봉사활동이었고, 대학을 다니면서 처음 맞은 여름방학 기간에 했던 활동 중 가장 특별한 경험이었다.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한 번도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거나 내가 할 봉사활동을 직접 기획하는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학기 중도 아닌 방학에 일주일마다 한 번씩 봉사활동을 기획하러 학교를 다닌 것부터가 나에게겐 특별했다.

처음에 봉사활동 장소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소이작도라는 섬은 편의시설이 현저히 적다고 들었다. 그만큼 우리가 불편한 점이 생겼을 때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어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에 가는 이번 봉사활동은 많이 지치기도 하고 힘든 봉사활동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했다. 그



렇지만 우리 봉사단 사람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해주신 분들께서 우리가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고, 서로 조심하고 배려했기 때문에 우려했던 일 없이 우리 봉사단의 첫번째 봉사활동이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봉사활동 프로그램 중 갯벌체험, 5경찾기, 영상물 제작 등 봉사단 사람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을만한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평소 우리가 생활하는 지역과는 많이 다른, 적응이 필요한 지역에서도 쉽게 지치지 않고 2박3일이라는 시간 동안 잘 지낼

9



수 있었다.

2박 3일 동안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 중 나에게 가장 보람있었고 기억에 남았던 활동은 바로 2일차에 진행한 벽화 그리기 활동이었다. 우리가 벽화를 그려넣기 전 아무런 그림도 없었던 곳에 처음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넣고 그 그림들을 마을 주민분들께서는 계속 볼 수밖에 없으니까 무엇을 그릴지 고민하는 단계에서부터 벽화를 완성시키는 단계까지 매우 신중했다. 마을 주민분들께서 보시면 기분이 항상 좋아질만한 그림을 선물해드리고 싶었다. 땀벌에서 몇시간 동안 앉아서 익숙하지 않은 페인트를 이용해 그림을 그려넣는 힘든 작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던 마을 주민분들께서 칭찬과 감탄을 보내주셔서 힘든 것을 잊을 만큼 기분이 좋았고, 다른 팀들의 그림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몇몇 프로그램에 대해 아쉽다고 느낀 적도 있었지만, 이 활동이 우리 봉사단의 첫 시도였기 때문에 미흡했거나 아쉬운 점은 다음 봉사활동을 기획할 때 그러한 점을 보완해서 더 알차고 보람있는 활동을 기획하고 활동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 활동수기 •

소이작도에서의 추억 해양봉사활동

인하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전소현



우리 봉사단은 인천섬발전지원센터와 상상유니브의 협력으로 2박 3일 동안 인천 섬의 발전을 위한 여정을 떠났다. 그 섬은 아름다운 보물섬, 해적섬으로 알려진 '소이작도'였다.

첫날, 나는 손가락바위가 있는 해안에서 친환경 마대봉투를 교체하는 일을 했다. 생각보다 많이 헤져 있는 마대봉투와 그 안에 있는 많은 쓰레기들을 보고 놀라기도 했다. 하지만, 바로 앞에 보이는 예쁜 해변과 흑염소들, 손가락바위 등의 여러 명소를 보면서 함께 힘을 합쳐 마대봉투를 교체하고 나니 뿌듯하고 해안정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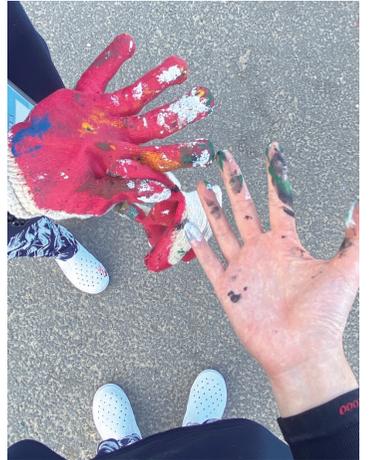
둘째 날, 우리는 별안 해수욕장의 갯벌 체험과 벽화 그리기 활동을 했다. 벽화 그리기 활동은 제일 기대했던 활동 중 하나였는데 우리 조는 열기구와, 꽃, 그

리고 소이작도에 많이 있던 귀여운 고양이들 중 워낙 사람의 손길을 좋아했던 '꺼둥이'를 그렸다. 대부분 벽화 그리기 체험이 처음이었고, 날씨도 워낙 더웠던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함께 땀 흘려 완성한 벽화를 보니 너무 예쁘고 소이작도의 새로운 명소를 만든 것 같아 뿌듯한 시간을 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소이작도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분들께 외래어 교육과 스마트폰 교육을 해드렸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항상 스마트폰 하실 때 모르는 것들 물어보시기도 하고, 카페나 요즘 여러 음식점에 있는 키오스크 사용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잘 알려드리고 싶었다. 또한, 조원들과 함께 벽화, 바다 앞에서 릴스도 찍고 단체 사진도 찍으며 3일동안 지냈던 소이작도에서의 추억들을 담았다.

우리는 즐겁고 행복하면서도 뿌듯한 봉사활동을 했지만 주변에서 봉사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소이작도 주민분들의 따뜻한 정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우리가 소이작도에서 편히 이동할 수 있도록 트럭을 직접 운전해주신 주민분들, 그리고 우리가 맛있는 밥을 먹도록 매끼 챙겨주신 주민분들, 그리고 이장님과 더운 날씨에 옆에서 응원해주신 현민이, 복숭아 나눠주시며 담소 나눴던 주민분들, 옆에서

10



항상 따라다니면서 도와 주신 관리자분들 등등 우리의 해양봉사활동을 완성해주신 분들이 없었다면 해낼 수 없었을 지도 모른다. 힘들었어도 돌이켜보면 행복하고 즐거웠던 추억으로만 가득했던 봉사활동이었던 것 같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다른 섬으로 봉사활동도 가보고 소이작도 또한 다시 방문해보고 싶다.

• 활동수기 •

고양이들과 함께하는 봉사

인하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김현빈



상상유니브와 인하대학교 문과대학교 봉사단, 인천섬발전지원센터가 함께하는 인천 섬 지역상생 캠프 X 블루아일랜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된 계기는 섬에 방문해 섬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고 방학중에 아무나 할 수 없는 봉사라는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봉사단 모집 공고가 올라왔을 때 주저하지않고 가입을 하게 되었다.

3일간의 봉사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활동은 이튿날에 한 벽화그리기가 아닐까 싶다. 살면서 페인트를 칠해볼 일도 없었고 벽화를 그릴 일은 더욱 없었기에 혹시나 내가 벽화를 망치면 어쩌나 하는 부담감과 그래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모두 들며 벽화를 그리러 나갔다. 내가 3일동안 머문 숙소 아래 도로에 해안쪽을 향해 조그만 벽이 있었는데 그곳을 칠하는 것

이 우리 목표였다. 먼저 벽화를 그리기 전 스케치를 하는 방법과 그 위에 페인트칠을 하는 법을 교육받고 각자 조로 흠어져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 조는 마지막 6조였는데 조가 조인자라 벽의 맨 끝 부분을 칠해야 했다. 생각보다 그려야 할 벽의 면적이 커서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미리 준비해간 분필로 차분히 공간을 나누며 스케치를 했다. 전날 우리 조는 그곳에 많이 살고 있는 고양이들을 그리기로 했다. 먼저 흰색 분필로 고양이 여러마리를 그리고 눈, 코, 입도 만들어주었다. 이렇게 보면 좀 간단한 작업 같았지만 그때는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던 여름날 오후였다. 그늘 하나 없는 채로 모자를 꼭 눌러쓰고 안과 밖을 왔다갔다하며 땀범벅인 채로 고양이를 그리던 내 모습이 기억이 난다. 스케치를 겨우 끝내고 바탕색을 페인트

11



로 칠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다. 소이작도를 상징하는 민트색을 롤러에 꼭 짚어 벽에 발랐다. 처음에는 롤러의 각도와 힘조절을 하는게 생각보다 어려워 고생했지만 점차 익숙해지며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다. 회색이었던 벽이 시간이 지날수록 민트색으로 물들며 벽화를 그리는 것이 실감이 났다. 마지막으로 있던 회색까지 모두 민트색으로 바꾼 후 색깔별로 고양이들을 칠했다. 전날 저녁에 봤던 치즈빛갈 노란색 고양이부터 겁이 많던 회색 고양이, 유독 사람들 손길을 좋아하던 검정 고양이 까뭉이까지. 롤러에 페인트를 묻혀 고양이들 색을 채워주고 조그마한 붓으로 흰색 노란색 눈코입도 그려주었다. 더운 날씨에 나를 비롯한 조원들과 봉사단 사람들 모두 고생했다. 하지만 회색빛으로 밋밋했던 벽이 민트색 바탕의 형형색색의 벽화로 채워진 것을 보니 내가 보람찬 일을 했다는 것이 실감이 났다. 나중에 소이작도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내가 그린 벽화를 본다는 점이 내가 이 섬의 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한 것 같아 부듯했다.

• 활동수기 •

아이코의 첫 족적을 소이작도에 남기고 오다.

인하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우성민



나의 이번 여름방학 시간 중 8월은 봉사단 활동에 썼다고 봐도 무방하다.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열심히 준비한 만큼 소이작도로 가는 첫 봉사가 기대됐다. 6시반까지 학교에서 집합해야 했기 때문에 5시반쯤 비몽사몽 눈을 떴다. 솔직히 이때는 너무 졸린 마음에 더 자고 싶은 마음만 가득했다. 하지만 배를 타자마자 소이작도에 대한 기대만 가득해졌다. 항상 봄비는 대학가에만 지냈던 방학 생활에 처음 느껴 보는 힐링이었다. 소이작도에 도착하자마자 인천에 살지만 말지 못했던 바다 냄새와 수많은 나무에서 느껴지는 피톤치드 향이 강렬했다. 첫 일정은 '소이작도의 숨겨진 5경 찾기'였다. 나는 여행센터가 있는 별안해수욕장 쪽에서 5경을 찾아 걸어 다니며 여러 사진을 찍었다. 이후 일정은 해안데크에 쌓인 모래를 정리하는 일을 했



다. 땀별에 삼질을 하는 것이 힘들긴 했지만 단원들과 함께 땀 흘리며 같이 봉사하는 것이 부듯했고 친목을 도모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준 것 같다. 첫 날 저녁엔 이장님이 감사하게도 회를 잔뜩 주셨다. 열심히 일한 뒤 먹는회는 정말 맛있었다. 둘째 날은 벽화 그리기 봉사를 주로 진행했다. 우리 조에는 그림을 정말 잘 그리는 단원 분이 있어서 든든했다. 1차 벽화 작업을 마치고 갯벌 체험을 하러 갔다. 한 친구가 거의 손만 갖다 대면 바지락이 나올 정도로 바지락이 정말 많은 곳을 발견했다. 정말 누

12



가 갯벌에 바지락을 물어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숙소 쪽으로 돌아와서는 벽화 작업을 마무리했다. 그후엔 정말 맛있는 직접 잡은 바지락탕을 먹었다. 소이작도에서 먹는 마지막 저녁이라고 생각하니 섭섭하기도 했다. 마지막 날엔 아침을 먹고 소이작도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외래어 및 스마트폰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진행 중 나는 일손이 필요하다는 말에 스태프 두 분과 파출소 소장님 그리고 단원 한 분과 함께 목사님 댁으로 향했다. 교회 테이블과 의자 몇 개를 옮기고 오미자물을 얻어 마셨다. 정말 꿀맛이었다. 이후엔 다른 댁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드리고 다시 숙소로 돌아와 점심 식사를 하고 여행자센터에서 조별로 찍은 릴스를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엔 단체사진을 찍고 다시 인천행 배에 올랐다. 너무 힘들었지만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한다. 돌아오는 배에선 친구와 함께 만두, 컵라면, 핫바, 족발을 먹었다. 참 맛있었다. 다음 기회에 또 소이작도에 방문해서 벽화도 다시 보고 이장님 아들 현민이도 다시 보고 싶다. 길지 않은 내 대학 생활에 잊지 못할 경험으로 남을 아이코의 첫 봉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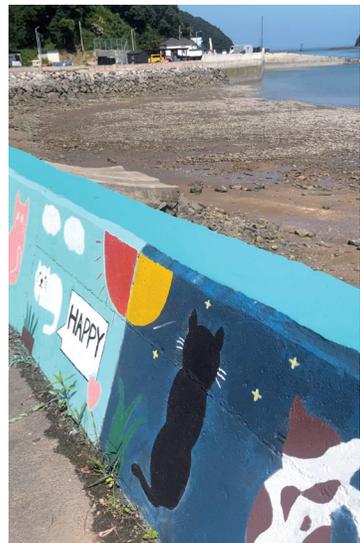
• 활동 수기 •

소이작도 봉사 수기

인하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김 세 진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영어영문학과 3학년 김세진입니다. 이번 봉사 수기집에서는 2023년 8월 17일부터 8월 19일까지 인천 소이작도 섬에서 참여한 봉사 활동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 봉사에서는 해변에서 바지락 캐기, 마을 벽화 그리기, 교육 봉사, 그리고 집수리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문과대학 학우분들과 함께 섬을 위해 봉사했던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학우들과 다양한 봉사 활동을 통해 소이작도 섬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선, 집수리 봉사에서는 방충망 스티커를 붙이고 망가진 방충망을 고치는 작업을 통해 주민들의 편안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모기약, 파스 등의 여름나기키트를

전달하면서 주민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해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날에는, 해변에서 바지락을 캐는 작업을 통해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직접 바지락을 캐는 경험은 색달랐고, 직접 캔 바지락을 먹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여름날씨 속에서 마을 벽화를 그리는 봉사는 문과대학 학우들과 함께 힘들었지만, 고생 끝에 완성된 작품을 보며 마을이 아름답게 변한 것을 보고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외래어 교육과 스마트폰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외래어와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어르



신들이 현대 사회의 변화에 더욱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번 봉사 경험을 통해 저는 협업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마을 벽화를 그리는 과정에서 함께한 문과대학 학우들과의 협력은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작은 노력이라도 주변 환경과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배우며 더욱 소중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장하는 경험을 통해 인내심과 강인함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이작도 섬에서의 봉사 활동을 통해 저는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이 저의 인생에 큰 영감을 주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봉사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을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이 봉사 수기집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3

• 활동 수기 •

모든 것이 처음, 인천섬발전지원센터&상상유니브와의 첫 걸음

인하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윤 두 혁

사실, 나는 봉사와는 거리가 좀 있는 사람이었다. 어머니 일을 도와 어린이집에서 탈인형을 쓰고 유치원생들과 놀아주거나, 크리스마스가 되면 산타 알바를 하는 등 그저 간단한, 봉사라고 부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활동만 자주 해왔던 것 같다. 하지만, 이번 여름 방학에 짧지만 특별한 경험을 할 기회가 생겼다. 바로, 인천섬발전지원센터와 상상유니브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만들고 꾸려나가는 인천 섬으로의 봉사활동 '인천 섬 지역상생 캠프'에 참가하게 된 것이다. 처음이 가장 힘들다고 하던가. 틀린 말이 아니었던 것 같다.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나는 그저 막연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에게 그가 필요한 것을 주는 간단한 활동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막상 도착한 소이작도에서의 봉사활동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거리가 있었다. 나는 봉사활동이 지루한 것이라 생각했



다. 어렸을 때부터 봤던 티비에서 사람들이 연탄을 나르고, 집을 보수하는 모습은 마치 기계적인 느낌조차 들었다. 하지만, 이번 '인천 섬 지역상생 캠프'에서 내가 한 경험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그 어느 것 과도 달랐다. 우리는 소이작도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해양정화, 5경찾기, 릴스 제작, 스마트폰 교육, 벽화봉사까지 정말 짧은 2박 3일의 일정이었지만 많은 활동을 소화했다. 물론 어려움도 존재했지만, 어 느새 그런 것은 잊고 봉사활동에 집중했던 것 같다. 덥고, 뜨겁고, 습한 날씨.



그 무엇도 문과대 봉사단의 활동을 멈추진 못했다. 특정 활동을 하다 보면, 우리는 느끼는 점이 생긴다. 즐거웠다, 슬펐다, 화났다 등 다양한 감정을 느낀다. 이번 소이작도에서의 봉사활동을 하며 느낀 것은 매우 복합적이었다. 물론 몸과 체력이 힘들었다. 하지만,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만난 새로운 사람들. 지금의 나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반기고 아껴주는 모습을 볼 때, 나는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봉사활동의 주 목적은 봉사를 하는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색다르고 평범하지 않은 감정을 느끼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 있어 정말 소중한 경험이 아닐 수 없었다. 만약 기회가 된다면 다시 가보고 싶은 정도의 활동이었다. 다시한번 나에게 소중한 경험을 하게 해준 문과대 봉사단 아이코, 상상유니브, 인천섬발전지원센터에게 감사를 표한다.

14

• 활동수기 •

2023 여름, 소이작도

인하대학교 중국학과
문현정



고등학교 재학 시절, 대학 진학 후 가장 기대했었던 대학 활동은 MT, 축제 그리고 농활이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몇 년간 제대로 이런 활동들을 누리지 못하던 중 아이코봉사단, 상상유니브, 인천섬발전지원센터와 함께하는 해양 봉사를 가게 되었다. 봉사를 가기 전부터 어떤 봉사를 할지, 가서 어떤 활동을 해야 부들하고 보람찬 봉사 활동을 할 수 있을지 팀원들과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도 했다. 4학년이 된 지금 나에게는 소중한 대학 생활 중 마지막으로 경험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라는 생각으로 후회 없이 다녀오겠다는 다짐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소이작도'라는 곳을 찾아갔다. 프로그램 준비로 밤을 새고 아침 일찍 팀원들과 모여 배를 타고 도착한 소이작도 섬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더 조그만 섬이었다. 또 이제껏 봐왔던 인천



바다와 다르게 너무 파랗고 맑은 바다를 끼고 있는 섬이었다. 해는 정말 강렬했지만 무더위가 잊어질 정도의 예쁘고 작은 섬이었다. 도착 후에는 소이작도 주민분의 트럭의 뒷칸에 타고 이동하였다. 사실 나의 조부모님이 벼농사를 짓고 계셔서 트럭의 뒷칸에 타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 아니었지만 단원 친구들과 함께 이러한 경험을 하니 마치 할머니댁에 친구들을 데리고 온 기분이었다. 소이작도에서 보낸 3일 내내 할머니댁에 가면 먹는 것처럼 아침, 점심, 저녁 세끼를 든든하게 챙겨먹었다. 또 우리 봉사단을 챙겨주시는 이장님과 길거리에 느긋하게 걸어 다니는 고양이들, 지나가다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해주는 주민 분들까지 봉사하러 간 섬이었지만 오히려 내가 힐링을 받고 가는 기분이었다. 이런 동네의 분위기와 마을 주민 분들

15



의 정겨움 덕에 내가 받은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남겨드리고 싶었다. 서 있기만 해도 더운 날씨였지만 땀벌에서 열심히 모래 삽질을 하여 데크 정리를 하고, 내가 제일 자신 없던 것 중 하나인 그림 그리기 실력이었지만 어느 미술시간보다 집중하여 예쁜 벽화에 그렸다. 단원들과 힘을 모아 모든 봉사 활동을 해냈다는 뿌듯함과 함께 주민분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며 나도 덩달아 행복해졌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스케줄에 몸이 피곤하기도 하고 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며 봉사 활동을 하니 힘들기도 했지만 소이작도에서의 2박 3일은 나의 기억 속에 오래 남을 것이다. 이제껏 해왔던 봉사 중 최고로 의미 있었던 기억이며 봉사단원들과의 유대감이 더욱 더 깊어질 수 있었다. 눈도 마음도 행복했던 소이작도, 언젠가 다시 한 번 방문하고 싶다.

• 활동수기 •

보람찬 시간들

인하대학교 프랑스언어문화학과
김민재

2박3일 간 소이작도에서 보낸 시간은 정말 큰 행복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출발했을 때, 섬에 도착했을 때의 설렘과 기대감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도착한 후 첫 날에는 각 조 별로 소이작도의 숨겨진 5경 찾기와 해양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조는 소이작도 이작2리마을 5경을 찾기 위해 마을 주변을 걸어 다녔습니다. 소이작도 마을은 크진 않았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풍경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올라면 탁 트인 시야로 보이는 바다와 그 앞에 있는 여러 종류의 꽃들부터 주민들이 거주하시는 집들의 벽에 그려진 다양한 벽화의 그림들 등 작지만 알차게 보여지는 마을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지나가다 마주한 큰 눈과 곰솔 털을 갖고있던 귀여운 강아지 별이도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숨겨진 5경 찾기를 진행하며 소이작도 마을의 정겨운 모습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해양 봉사 중 환경 정



화를 위한 봉사를 하러 갔습니다. 친한경 마대봉투 교체를 했는데 생각보다 크고 많은 양을 보고 놀랐지만 최선을 다해서 봉사단 사람들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밖에서 정리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되돌아보면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했던 활동이었기에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둘째 날에는 벽화 그리기와 갯벌 체험을 했습니다. 오전에 벽화에 어떤 그림을 그릴지 도안을 먼저 생각한 후 미리 스케치했습니다. 소이작도와 어울리는 벽화를 그리기 위해 고민하다가 주변에 많이 보이던 꽃과 바다의 모습으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케치를 미리 그려둔 후에 갯벌 체험을 위해 별안해수욕장에 다녀왔습니다. 바지락 캐기 활동을 했는데 처음에는 잘 나오지 않아서 정말 있는 게 맞는지 싶었지만 열심히 캐다 보니 하나씩 발견되는 바지락을 보면서 재미를 느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바지락 캐기 활동을 하고 미니게임도 하면서 갯벌에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에는 벽화 그리기를 마무리하기 위해 채색 작업을 진행하였고,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다 끝난 후 완성된 모습을 보니 너무 부들하

16



고 만족스러웠습니다. 마지막 날 주민분들을 위한 외래어 및 스마트폰 교육을 진행하면서 소이작도에서의 봉사활동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걱정과 기대를 안고 왔던 소이작도에서 쉽게 경험해볼 수 없는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크고 작은 행복들과 즐거움, 좋은 추억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나가며 마주치는 주민분들의 따뜻한 환영과 웃음들은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학교 입학 후 처음 해 본 해양 봉사활동을 소이작도에서 봉사단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2박3일간 보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었기에 좋은 추억으로 오래오래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활동수기 •

소이작도에서 행복했던 시간들

인하대학교 프랑스언어문화학과
최명희



섬에 도착하고 편안하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소이작도는 작지만, 큰 안정감을 주는 섬이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소이작도는 멋진 사진 촬영 장소들이 있습니다. 경로당 앞에 있는 큰 나무 아래에 있는 앵무새, 좁은 골목길로 내려가다 보면 보이는 바다와 노란 꽃들을 바라보다 보면 어 느샌가 안온함을 느끼고 있는 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소이작도의 매력에 흠뻑 빠져있을 때, 귀염받기를 좋아하는 강아지 '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별이와 시원한 물을 나눠 먹으며 그늘에서 함께 햇빛을 피하는 시간은 고요한 섬에서 느낄 수 있었던 약간의 설렘이었습니다.

아름답지만 했던 소이작도에서 쓰레기를 정리해야 한다면 누워서 떡 먹기겠거니 싶었습니다. 쓰레기의 양이 문제

가 아닌 쓰레기가 담겨있던 포대들이 낱아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포대 속으로 쓰레기를 옮기면서 바다에서 흘러들어오는 쓰레기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쓰레기들의 냄새와 무게가 상당했기에 쉽지 않은 봉사였습니다. 포대가 하나씩 정리되면



17



서 깔끔해지는 모습과 그 옆에 펼쳐진 드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이작도는 구석구석 벽화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벽화들 사이에 직접 생각한 디자인을 소이작도에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고, 즐거웠습니다. 벽화를 그리면서 마을 주민분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주민분들께서 벽화에 대한 아이디어와 응원의 말들을 해주셔서 감사히 벽화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봉사단이 완성한 벽화라기보다는 주민분들과 함께 완성한 벽화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기쁜 마음을 꼭꼭 담아 완성한 벽화 소이작도의 바다와 어우러져 섬의 감초 역할을 하게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소이작도는 아름다운 바다에 안겨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는 섬이었습니다. 소이작도의 그 모습 그대로이기에 더 멋지다고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문을 열면 들리는 바다의 소리, 반짝이는 바다의 모습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소이작도에서의 봉사활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 활동수기 •

즐거웠던 지역상생 캠프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권도이



이번 인천 섬 지역상생 캠프는 내게 굉장히 뜻깊었던 활동이었다. 고등학교 때 봉사동아리에 가입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제대로 활동해보지 못하고 졸업했고, 이후에도 여러 봉사에 관심을 가져왔지만 유의미한 활동까지는 해내지 못해 아쉬움이 컸는데, 이번 기회로 2박 3일 봉사를 다녀오게 되어 기대가 가득했다. 이렇게 시작부터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고, 2박 3일간 역시 부듯함과 성취감을 가득 얻을 수 있었다. 첫날에는 해안 데크 정리를 진행하였는데, 아주 힘든 작업이었고 꽤나 오래 걸렸지만 목표한 기준치를 달성하자 그 변화가 확연히 보여서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또 소이작도의 여러 풍경을 둘러보며 지역상생 캠프의 본질과



목적을 다시 한 번 상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벽화 그리기 봉사를 진행했다. 마을 주민분들이 항상 보실 풍경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큰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풍경과 볼거리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벽화 도안을 열심히 고민하고 벽화를 그려 나갔다. 이렇게 첫째 날

18



과 둘째 날 두 가지 봉사 활동을 진행하며 조끼리의 협동심을 다져나가는 과정을 겪었고 함께 해서 더욱 부듯하고 즐겁기도 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셋째 날에는 섬 주민분들께 외래어 사용 교육과 스마트폰 사용 교육을 실시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알려드리며 나 또한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3일 동안 알찬 시간을 보내며 즐거움과 부듯함을 동시에 느꼈고 기회가 된다면 이런 봉사활동을 또 한번 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여러모로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행복했다.



• 활동 수기 •

소이작도에서의 3일은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한 사람



그저 봉사 한 번 해볼까? 새로운 경험을 가져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이었다. 원래 처음은 다 그렇다. 소이작도에서의 2박 3일은 그렇게 쉬운 시작 치고는 꽤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은 순간이었다.

첫째날, 가장 먼저 소이작도의 5경 찾기 활동을 했다. 더운 날 햇볕아래 걷는 것이 힘들었다. 하지만 곳곳에 아름다운 풍경들이 가득했기에 버틸 수 있었다. 그리고 바다에서 들려오는 파도소리가 더운 날씨를 조금이나마 잊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약간의 휴식 후 해안 데크에 쌓인 모래를 정리하는 활동을 시작하였다. 삽으로 모래를 퍼내 주머니에 담은 후 모래사장으로 다시 돌려놓는 일이었다. 모래의 무게가 생각보다 더 무겁고 우려했던 것 이상으로 햇볕이 쨍쨍해 상상했던 것보다 더 고된 일이었다. 게다가 모래가 보기보다 제법 많이 쌓여 시간 내에 모두 정리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기도 했다. 그 많은 모래가 모두 바람에 의해 쌓였



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래도 처음과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이 부딪음을 주기도 했다.

둘째날, 해안가의 벽에 알록달록한 벽화를 그려 넣었다. 조별로 테마를 정하고 공간을 채워 나갔다. 내가 속한 조는 바다를 주제로 삼았다. 오징어, 해파리, 해조류, 산호, 가오리, 게, 조개 껍데기 등 바다의 생물들과 함께 인어나 등대, 파도 문양을 새겨 귀엽고 아기자기한 그림을 완성해냈다. 색칠을 조금 더 꼼꼼히 하여 완성도를 높였으면 더 좋았겠다는 후회를 하기도 했지만 조금 떨어져서 보면 그럴듯한 벽화였다. 이후에도 벽화를 그릴 기회가 주어진다면 번거롭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촘촘하게 칠을 해야겠다 반성하게 되었다. 이 날 갯벌 체험도 할 수 있었는데 초등학교생이었을 적 이후로 처음으로 갯벌에 들어가는 것이어서 새롭기도 하고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도 하는



경험이었다.

셋째날, 섬의 어르신 분들께 외래어 교육과 스마트폰 사용 교육을 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생각보다 어르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으셔서 조금 아쉬웠지만 새로운 것에 반응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 즐거웠다. 특히 같이 봉사에 참여했던 분들의 재미있는 말씀씨에 감탄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다.

여태까지 이렇게 멀리, 그리고 길게 봉사를 해본 경험이 없었기에 모든 것이 색다른 시간이었다. 날씨가 날씨인지라 피부도 새까맣게 그을리는 불상사도 겪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아쉬웠던 활동도 있었으나 기억은 언제나 미화되기 마련이라 지금 생각해보면 즐거운 일 투성이었다. 이동할 때마다 탔던 트럭이 그 중 으뜸이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풍경을 바라다보면 기분이 선선했다. 다음에 여행가로서 소이작도에 다시 방문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때는 지금과 또 다른 감상을 가지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함께한 사람들



인천섬발전지원센터는 인천 섬에 대한 연구조사 및 다방면의 사업지원을 통해 섬 발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상상유니브는 KT&G가 추구하는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대학생에게 배움과 성장,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인하대학교

문화콘텐츠경영학과 박정진, 방강진, 신예령, 이서영, 이수미, 이유진, 이혜지, 조원휘, 조정익

영어영문학과 김보빈, 김세진, 김현빈, 우성민, 윤두혁, 윤지원, 윤채연, 윤하은, 이연재, 전소현

중국학과 문현정, 이경서

프랑스언어문화학과 김민재, 최명희

한국어문학과 권도이, 한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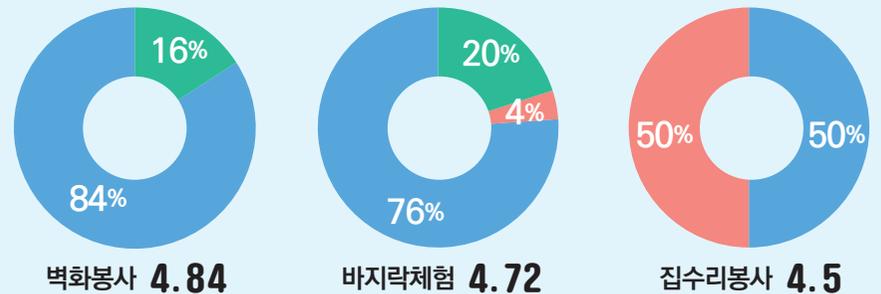


캠 프 만족도 평균 4.69



[만족도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 TOP 3]

프로그램 만족도 평균 4.43



발행일 2023년 11월 11일 발행처 인천광역시 기획 인천섬발전지원센터 디자인 (주)혜성디자인

*본 발행물의 모든 저작권은 인천섬발전지원센터에 있으며, 사전 허가 없이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편변형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